

독후활동지
네가 오니 좋구나! (교사용)



1907년,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친구와 꿈을 만납니다!

유영소 지음 | 오승민 그림

#역사소설 #꿈 #성장 #대한제국 #차이성 #친구관계
#우정(국적, 인종을 초월한 우정) #연대



책소개

『네가 오니 좋구나!』는 1907년 한성을 배경으로 이해할 수 없는 역사의 한복판에 서게 된 열두 살 달래가

그럼에도 꿈을 놓지 않고 자신을 찾아가는 이야기를 아이의 시선으로 따뜻하게 담아낸 작품입니다.

1900년대 초 조선은 나라의 운명을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살얼음판 위에 있었습니다.

일본과 러시아의 패권 다툼 속 조선의 운명은 임금과 이미 다른 나라의 손에 넘어간 듯 보였죠.

주권을 잃은 백성들의 암울한 삶은 말할 수 없는 탄식만 자아낼 뿐이었습니다.

이러한 냉혹한 현실 앞에서 선택지가 별로 없는 삶을 살아야 했던 달래가 포기하지 않고 미래를 향해, 꿈을 향해 한 발 한 발 내딛는 모습은 안타깝습니다.

시련 앞에서도 살아가야 할 이유를 찾으며 시리고 아픈 계절을 견디고 있는 달래를 지탱해 주는 것이 무엇인지를 작품을 통해서 알아보세요!

암울한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달래는 무엇을 만나게 될까요?



네가 오니 좋구나!

- 글 : 유영소
- 그림 : 오승민
- 출판사 : 문학과지성사
- 분량 : 168쪽
- 대상 : 초등학교 5~6학년

교과연계

초등학교 5학년

국어 5-1 1. 대화와 공감
 도덕 5-2 6. 인권을 존중하며 함께 사는 우리
 사회 5-1 2. 인권 존중과 정의로운 사회
 사회 5-2 2. 사회의 새로운 변화와 오늘날의 우리

초등학교 6학년

국어 6-1 8. 인물의 삶을 찾아서
 국어 6-2 1. 작품 속 인물과 나
 도덕 6-1 1. 내 삶의 주인은 바로 나
 도덕 6-2 4. 공정한 생활
 사회 6-1 1. 우리나라의 정치 발전
 사회 6-1 2.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

- 책을 읽기 전에 생각해 봅시다.

1. 현재 나의 꿈은 무엇인지 적어 보세요.
2. 친구와 갑자기 헤어지게 된다면 나의 마음은 어떤지 적어 보세요.
3. 단어와 그 뜻을 바르게 골라서 적어 보세요.

설레발 · 어뜩어뜩 · 달포 · 죽마고우 · 질녀 · 데면데면 · 엄병통 · 샅 · 탐영 · 자발없다 · 마뜩잖다

· 머리가 몹시 어지러워 자꾸 정신을 잃고 까무러칠 듯한 모양	어뜩어뜩
· 형제 자매의 딸	질녀
· 마음에 들 만하지 아니하다.	마뜩잖다
·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친밀감이 없이 예스러운 모양.	데면데면
· 어리둥절하여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판국.	엄병통
· 어떤 형태를 그대로 본떠서 그림.	탐영
· 일한 데 대한 품값으로 주는 돈이나 물건.	샅
· 몹시 서두르며 부산하게 구는 행동.	설레발
· 행동이 가볍고 참을성이 없다.	자발없다
· 한 달이 조금 넘는 기간.	달포
· 어릴 때 아주 긴밀했던 친구를 뜻한다.	죽마고우

- 책을 읽고 내용과 생각을 정리해 봅시다. _____

1. 네가 오니 종구나!를 읽고 생각나는 내용을 마인드맵으로 표현해 보세요.

교사Tip 달래를 중심으로 인물, 장소, 느낌 등 자유롭게 생각해낼 수 있도록 도와 주세요.



2. 기억에 남는 장면과, 그 장면을 선택한 이유를 각각 적어 보세요.

기억에 남는 장면
기억에 남는 이유

- 책을 읽고 내용과 생각을 정리해 봅시다.

3. 다음 〈보기〉의 단어를 활용하여, 달래는 어떤 사진사가 되고 싶은지 적어 보세요.

〈보기〉
사진 | 정의로운 | 순간을 기억 | 여자 사진사

교사Tip

예시 답안.

박히는 사람을 존중하고 그의 마음을 고스란히 담은 사진. 그 순간을 기억하게 하는 사진.

옳고 그른 사실을 알리는 사진. 참된 사람이 참되게 박는 사진. 그리하여 누구에게든 다정하고누구에게도 정의로운사진을 찍는 사진사가 되고 싶었다.

4. 1907년 한성을 배경으로, 달래는 선택지가 별로 없는 삶에서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야할 이유를 찾으며, 견디고 지탱해 주는 것이 무엇인지를 적어 보세요.

교사Tip

새로운 가족, 친구, 꿈, 전쟁 속에서의 연대

- 책을 읽고 내용과 생각을 정리해 봅시다.

5. 임금이 있는데 일본이 제 나라처럼 구는 것과 서툰 조선말로 학교와 병원에서 일하는 파란 눈의 외국인들, 하지만 그 속에서 달래는 샘과 료코를 만나 친구가 되고, 서로 다른 처지에 놓였지만 속 깊은 우정을 나누게 된다. 일본인과 친구가 된다는 걸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달래가 친구의 참 의미를 깨달아 가는 과정은 진정한 친구란 무엇인지 그 의미를 되새기게 한다. 나에게 있어서 진정한 친구란 무엇일까 적어 보세요.





문지아이들은 1999년 첫걸음을 내딛어 오늘에 이르기까지
어린이들의 정서와 감각에 맞는 양질의 아동도서를 활발히 출간하고 있습니다.

국내외의 문학성 높은 작품들을 소개함으로써
어린이들에게 드넓은 상상의 세계를 선사하고자 합니다.
또한 '마해송문학상'을 제정하고 역량 있는 동화 작가들을 발굴하여
아동문학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 나가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의 지성에 불을 밝히고 마음에 온기를 더해 줄
알찬 책들을 한 권 한 권 정성을 다해 만들겠습니다.



문지아이들 신간 소식

문학과 주소 서울시 마포구 잔다리로 7길 18 전화 02-338-7224
지성사 팩스 02-338-7221 홈페이지 <http://moonji.com>